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성의 생식능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발기부전 치료약 실데나필이 정자의 기능에.  
영국 퀸스대학 의대 산부인과에서는 성분 シルデナフィルクエン酸塩의 정자의 운동성 개선 및 先体의 반응을 조기 유도하는 작용을 관찰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비아그라에 노출된 정자는 운동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정자의 머리 끝부분에 존재하는 先体의 반응을 조기에 유도한다고 주장 했다.

다만 이 연구는 임상시험이 아니라 실험실 수준의 연구이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상관성 여부가 좀 더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先体란 정자로 하여금 난자 내부로 들어가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ヒアルロニダーゼ (Hyaluronidase) 등의 효소가 생산되는 곳이다. 先体의 반응이란 난자 주위의 세포막을 녹여 정자의 진입이 쉽도록 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 실험은 57명의 남성들로부터 채취한 정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연구팀은 실데나필이 정자의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었다. 연구팀은 형광색소물질의 일종인 fluorescein イソチオシアネート를 입힌 곳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착색되는 과정을 컴퓨터를 사용해 관찰하는 방식으로 정자와 先体 반응의 상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15~135분 동안 실데나필에 노출되었던 정자들의 경우 비 노출群에 비해 운동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이 눈에 띄었다. 활발히 활동하는 정자의 숫자도 증가 했고, 정자의 운동 속도의 증가도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100mg 용량의 비아그라를 복용한 후 30분 정도가 경과한 후의 정자들은 先体 반응이 조기에 촉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형상은 정자가 아직 난자와 만나기도 전에 先体 반응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난자와의 수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先体의 반응이란 난자 주위의 세포막을 녹여 정자의 진입이 쉽도록 하는 작용을 말한다.

본인이 대통령임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낼 것이란 말도 나온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하며. 중국 관련 문제뿐 아니라 그가 관심 있는 사회·문화 사안까지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다음 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한 공화당원을 인용해 "제조업,.   
  
바이든 후보는 전날 인수위 홈페이지를 선보이며 본인이 취임 직후 즉각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발언도 잇달아 내놓으면서 사실상 승리를 암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선은 개표 지연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소송전으로 차기 대통령 확정 일자가 안갯속에 빠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두 명의 후보가 동시에 당선자임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미국에 전례 없는 혼란이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 `집권 2기` 모양새 만들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공개하며 사실상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대선 결과가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차기 대통령을 행세하면 미국에서 초유의 `두 명의 대통령`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현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트럼프를 대통령처럼 보이도록 하는 전략 실행에 나섰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개각이 거론된다. 이전부터 해임설이 나돌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교체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누가 충성했는지, 누가 유능했는지를 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하며 본인이 대통령임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낼 것이란 말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한 공화당원을 인용해 "제조업, 중국 관련 문제뿐 아니라 그가 관심 있는 사회·문화 사안까지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다음 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바이든 후보는 전날 인수위 홈페이지를 선보이며 본인이 취임 직후 즉각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발언도 잇달아 내놓으면서 사실상 승리를 암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선은 개표 지연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소송전으로 차기 대통령 확정 일자가 안갯속에 빠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두 명의 후보가 동시에 당선자임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미국에 전례 없는 혼란이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전날 인수위 홈페이지를 선보이며 본인이 취임 직후 즉각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지분)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무주택자와 예비 1주택자들도 `규제를 모르면 망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이들 중에서 위장전입을 하지 않아 뜻밖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첫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민등록 체계상 `1가구의 주택 수`는 가구주(부모)와 가구원(자식) 모두를 넣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1주택자인 경우 가구원으로 있는 자식이 첫 집을 마련해도 `2주택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 때 2주택자에겐 8%, 3주택 이상에는 12%로 높은 취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첫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